

최근 중국경제 동향, 주요 이슈 및 전망

<목 차>

1. 최근 경제 동향
2. 주요 정책 동향
3. 주요 이슈
4. 시사점

2010. 10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1. 최근 경제 동향

■ 최근 중국경제는 2분기 연속 성장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는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.

■ 연속 2분기 성장둔화

-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 1분기 11.9%, 2분기 10.3%, 3분기 9.6%로 2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.

○ 2009년 1/4분기 6.5%의 성장률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저점을 기록한 후, V자형 회복세(2분기 8.1%, 3분기 9.1%, 4분기 10.7%)를 보이며 연중 9.1%의 성장률을 기록

- 2010년 1~3분기까지의 누적 성장률은 10.6%를 기록하였으며, 2010년 연간 10%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표1.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

(단위: 전년 동기대비, %)

구분	2008년	2009년	2010년		
			1/4	2/4	3/4
GDP	9.6	9.1	11.9	10.3	9.6
산업생산	12.9	11.0	19.6	15.9	13.5
소매판매	21.6	15.5	17.9	18.5	18.4
고정자산투자	25.5	30.1	25.6	25.0	24.0 ¹⁾
수출	17.2	-15.9	28.7	40.9	32.2
수입	18.5	-11.2	64.6	44.1	27.4
CPI	6.9	-0.7	2.2	2.9	3.5
총통화(M2)	17.8	27.7	22.5	18.5	19.0

주: 1) 1/4~3/4분기 누계 기준

자료: CEIC; Global Insight; 한국은행.

■ 소비가 견조한 가운데, 투자수요 및 순수출이 감소한 것이 최근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됨.

- 소매판매는 2009년 15.5%에서 2010년에는 분기별로 17.9%~18.5%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중임.
- 고정자산투자는 각종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2009년 30.1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, 2010년에는 분기별로 25% 선에서 하향 안정화 (1~9월까지 누계기준 24.0%의 증가율 기록)
- 2009년 -16.0%로 격감했던 수출은 2009년 12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어, 1~9월까지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%의 증가율을 보였으나, 수입증가율이 더 높아(42.4%) 순수출은 감소추세

■ 산업생산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

- 산업생산은 1분기 19.6%, 2분기 15.9%, 3분기 13.5%로 급격한 둔화추세를 보임.
-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를 2009년 하반기의 생산회복에 따른 기저효과와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저효율설비 가동의 중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

■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

- 2010년 9월 CPI는 3.6%로 지난 2008년 10월(4%)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PPI도 4.3%를 기록

※ 1~9월까지 기간 상승률은 CPI 2.9%, PPI 5.5%

- 9월까지 2.9%로 연초에 제시한 물가상승 가이드라인(3%)에 육박

※ 9월까지의 물가상승은 주로 식품(6.1%), 원자재/연료/에너지 수입가격 상승(9.8%)에 기인

2. 주요 정책 동향

■ 금리인상 단행

-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들어 4차례 기준율을 인상한 데 이어 2010년 10월 20일부터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 및 예금금리를 각각 0.25%p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함(10.19).

표2. 최근 중국정부의 기준율 및 금리인상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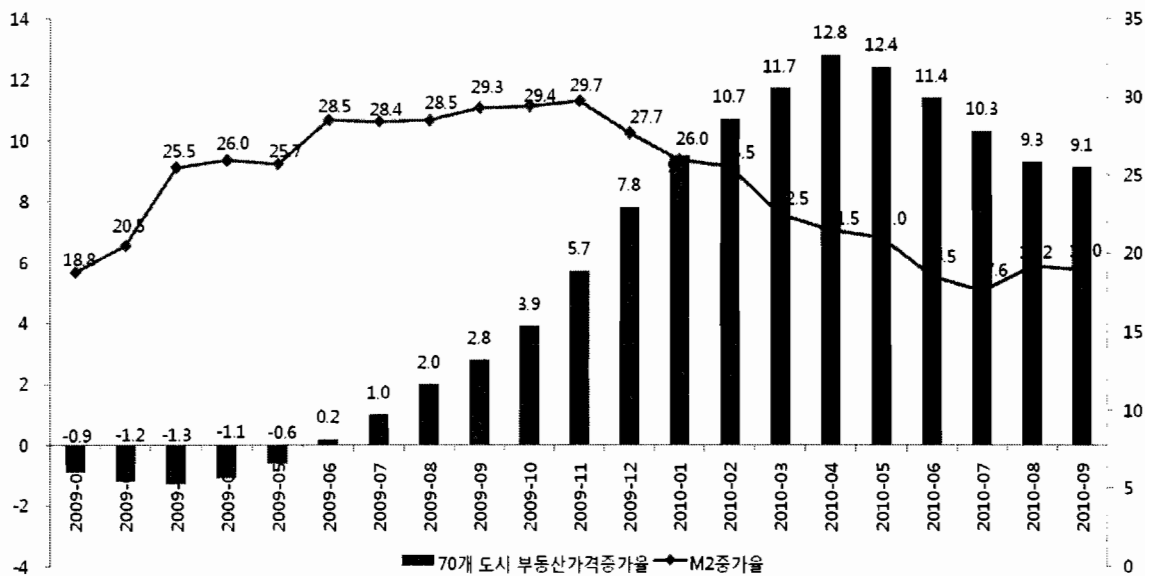
주요 조치	주요 내용
지급준비율 인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인민은행은 2010년 1월 12일, 2월 12일, 5월 2일 세차례에 걸쳐 각각 0.5%p 지급준비율을 인상 - 10월 11일 6개 대형은행(건설은행, 농업은행, 공상은행, 중국은행, 초상은행, 중국민생은행)에 대해 향후 2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준율을 0.5%p 인상
금리인상(2010.10.1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 만기 대출금리: 5.31% → 5.56%, 1년 만기 예금금리: 2.25% → 2.5% -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.27%p 인하한 이후 처음으로 인상

- 금번 금리인상은 경기과열이나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과잉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가 타겟
- 즉 경제성장율이 둔화하는 가운데 CPI는 억제선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.
- 2010년 1~9월 위안화 신규대출 규모는 6조 3000억 위안으로 이미 2010년 목표치인 7.5조 위안의 80%를 넘어선 상태이며, 9월 말 현재 총통화(M2) 증가율은 19%로 여전히 정부 목표치인 17%를 초과
-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은 2010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친 부동산시

장 안정화 조치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지만, 9월 전년동기 대비 9.1%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지속

그림1. 중국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 및 M2 증가율 추이

(단위: 전년 동기대비, %)



- 금번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이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여지가 있음.

※실질금리(9월 기준): 1년 만기 예금금리(2.5%) - 소비자물가상승률(3.6%) = 실질금리(-1.1%)

-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남아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인 바, 그 시기와 폭은 부동산가격, 물가상승률, 해외수요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검토한 이후에 결정

■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이 진행 중

- 중국인민은행의 '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조치' 발표(2010.6.19) 이후 위안화는 약 2% 절상되었으며, 이러한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10년

말까지 3~4%의 절상이 예상된다.

- 반년간 3~4%의 절상 속도는 2005년~2008년 기간 연 평균 7% 정도의 절상속도에 비해 결코 느린 것이 아니나,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음.

표3.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정책 변화

구분	위안화 환율 절상 폭
1. 2005.7 ~ 2008.6: 통화바스켓 제도 도입	21%
2. 2008.7 ~ 2010. 6.18: 사실상 미 달러화에 페그	미 달러화에 페그((US\$1 = ¥6.83)
3. 2010. 6.19~: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조치 (통화바스켓제도 복귀)	2%(6월 18일 1달러당 6.83위안 → 10월 22일 1달러당 6.68위안)

-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자국 수출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임.

※ 원자바오 총리(10.6),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(10.8),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(9.30) 등은 위안화 절상에 대해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표명

- 향후 위안화 절상은 완만하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.

3. 주요 이슈

■ 2011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

-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2010년 중으로 완료되고, 부동산가격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

- 2011년 중국 경기는 1) 경기부양책 종료 이후 공공투자의 감소를 민간투자의 증가가 상쇄하느냐, 2)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.

○ 민간의 투자와 소비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.

※ 2010년 8월과 9월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(PMI)가 상승세로 전환(9월 53.8, 19개월 연속 50 이상), 3분기 기업가신뢰지수도 상승(135.9, +2.9p)

※ 소비자신뢰지수는 2010년 3월 이후 106.6~108.6의 높은 수준에서 유지

-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되면 2011년에도 9%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표4. 주요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

(단위:%)

	2010년	2011년
IMF	10.5	9.6
ADB	9.6	9.1
Global Insight	10.3	8.6
중국사회과학원	9.9	10.0

자료: IMF, World Economic Outlook:(2010.10); ADB, MASIAN DEVELOPMENT Outlook 2010(2010.9); Global Insight(2010.10); 사회과학원(2010.10)

■ 12차 5개년계획(2011~2015)의 정책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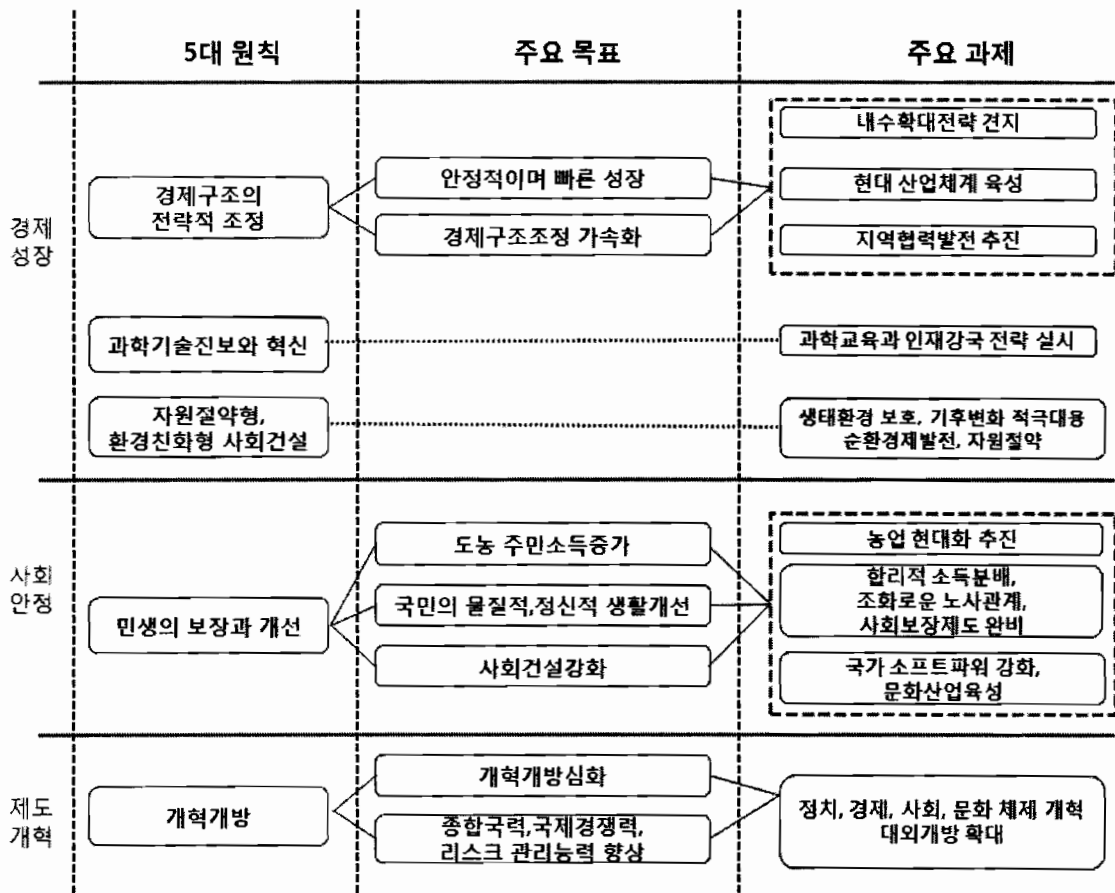
-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(17차 5중전회)에 제출된 12차 5개년계획(2011~2015)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방향의 기본 틀이 제시

※ 2011년 3월 전인대 개최까지 지역 및 산업별 12차 5개년계획이 구

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.

- 주목할 내용은 1) 내수확대 위주의 성장방식의 전환 2) 적극적인 소득분배 개선 정책임.
- 내수확대 위주의 성장방식의 전환 : 고도(較快) 성장의 유지, 거시조정의 강화, 소비수요 확대의 장기적 메커니즘 건립(사회보장 제도의 강화 등을 의미), 투자구조의 조정, 소비/투자/수출이 조화된 성장 견인 등임.
- 적극적인 소득분배 개선 정책 : 주민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고, 노동분배율(피용자보수율)의 제고, 사회보장제도 확대, 의료위생사업 개혁 등

그림2. 12차 5개년 계획의 원칙, 목표, 과제



- 17기 5중전회에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.

※ 신에너지, 환경절약 환경보호, 신에너지 자동차, 신소재, 바이오 산업, 신세대 정보기술, 선진설비제조업 등

4. 시사점

■ 중국경제의 변화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

-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- 단기간 내 대폭적인 금리인상이나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음.

※ KIEP국제거시모형(KIEP-GIMF10)의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, 중국의 실질GDP 1%의 감소는 한국의 실질GDP를 0.22% ~ 0.38%, 대중 수출은 약 2%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세 둔화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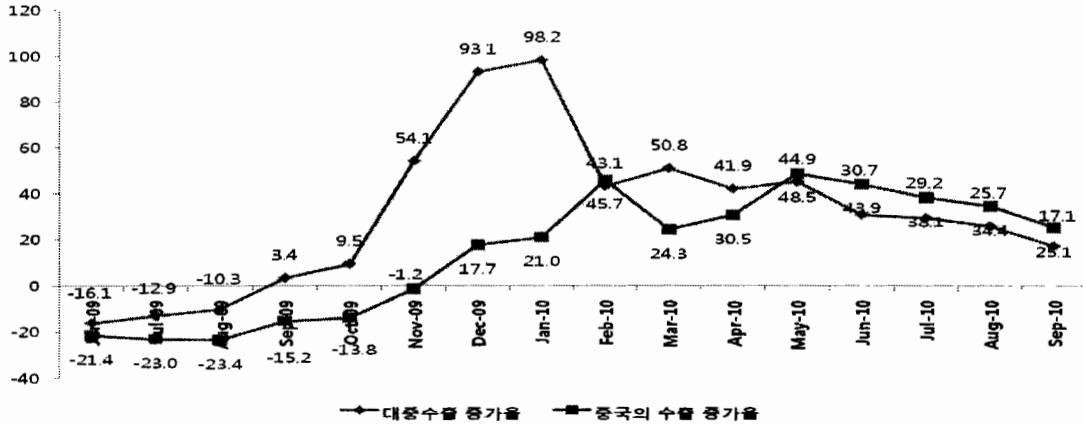
- 2010년 1/4분기를 정점으로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대중 수출증가율은 5월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

※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이 대부분 중간재(부품·소재) 위주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둔화 → 중국의 중간재 수입감소 → 한국의 대중 수출둔화로 이어짐.

-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, 남유럽발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한국의 대중 수출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
그림3.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및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

(단위: 전년 동기대비, %)



■ 12차 5개년계획의 합의

- 중국의 12차 5개년계획(2011~2015)이 2011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소비 수요 촉진을 비롯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따라 중국의 내수시장 성장, 소비 대중화, 서비스 수요 확대, 도시화, 환경 및 신에너지 수요 증가 등에 부합하는 대중 진출전략 모색이 필요함.
- 분배구조의 개선과정에서 노동, 자본 등에 대한 요소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며,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임금, 이자율, 배당률 등의 상승기조가 형성될 전망
- 즉 중국이 강조하는 소득분배는 재정 등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 (redistribution)가 아니라 요소가격 조정을 통한 초기분배(primary distribution)의 강화임.
- 이에 따라 대중투자 한국기업의 임금 및 자본조달 비용 상승이 예상됨.